

문 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김용훈 사무관 한재균	042-481-5051 042-481-5978
	2019년 6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12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벤처형 조직으로 지식재산 혁신업무 추진

- 중앙부처 '벤처형 조직' 심사에서 유일하게 2개과 선정 -
- '특허창업지원과' 혁신특허 발굴하여 창업·투자 원스톱 지원 -
- '아이디어거래혁신과' 소비자-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구축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 7월부터 벤처형 조직으로 2개과 ('특허창업지원과' 및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신설·운영하여 지식재산 혁신업무를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벤처형 조직 】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벤처형 조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혁신·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벤처형 조직은 장·차관 또는 청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등 기존 조직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5개 부처가 제출한 44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1차 심사와 국민참여형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허청은 내부 공모 등을 통해 총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였고, 이 중 '특허창업지원과'와 '아이디어거래혁신과'가 선정됐다.

- (특허창업지원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혁신특허'를 발굴할 예정이다.

- 또한, 혁신특허 및 스타트업 정보를 창업 관계부처와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기술창업 지원과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에게는 특허컨설팅, 투자로드쇼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 이로 인해 스타트업은 혁신특허에 기반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창업 관계부처와 민간 투자자는 객관적으로 분석된 혁신특허 정보를 통해 정책지원과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디어거래혁신과)는 QR 코드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 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으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김용훈 혁신행정담당관은 “특허창업지원과는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과 정부·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아이디어거래혁신과는 소비자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손쉽게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혁신특허와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한재균 사무관(☎ 042-481-59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